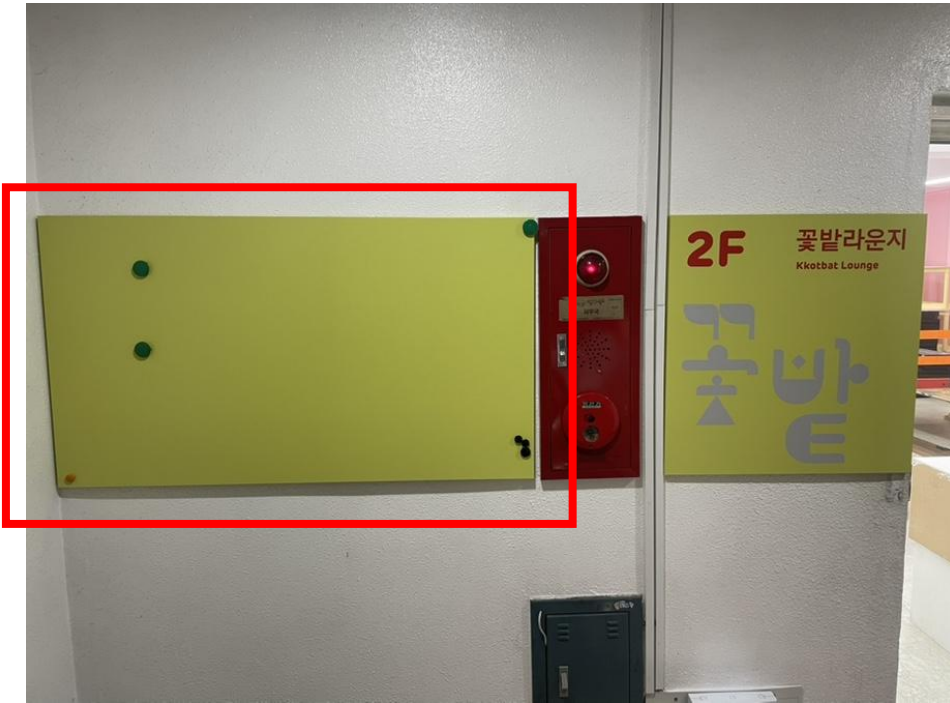




# 아르코꿈발극장 홍보 포인트 이용 가이드

ver.2025.10.24.

## 2층 매표소 입구 앞 게시판 - 1160\*650mm



- 포스터 2장 게첩 가능
- 자석 이용 게첩 (기본 수량 극장 보유)

※ 바로 옆 철문(화장실로 통하는 문) 개방 시 우측 사진과 같이 가려짐 참고  
(매표소 오픈과 함께 개방됨)

## 2층 로비 거울

- 공연 특성에 따라 단체에서 직접 꾸며서 관객 포토존으로 활용
- 로비에 비치된 유리마카 이용
- 관람객이 추가로 직접 그릴 수 있도록 안내함



## 2층 로비 포토존

- 2층 로비 빈 벽에 현수막을 걸어서 포토존으로 활용 가능  
(상단 타공 및 하단 봉 부착)
- 벽 상단에 부착된 레일 이용,  
레일 고리 6개 극장 보유
- 현수막 최대 사이즈: 3500\*2300mm
- 별도 제공 친환경 문구 삽입 필요  
(일러스트 파일 제공)
- 공연 특성에 따라 포토존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활용 가능  
(단, 담당자와 사전 협의 필수)
- 해당 공간 활용에 따른 필요 물품 준비, 설치 및 철수는 모두 대관단체에서 담당
- 로비 내 테이블은 이동 또는 위치 조정 가능 (꿈발극장 하우스매니저와 협의 필요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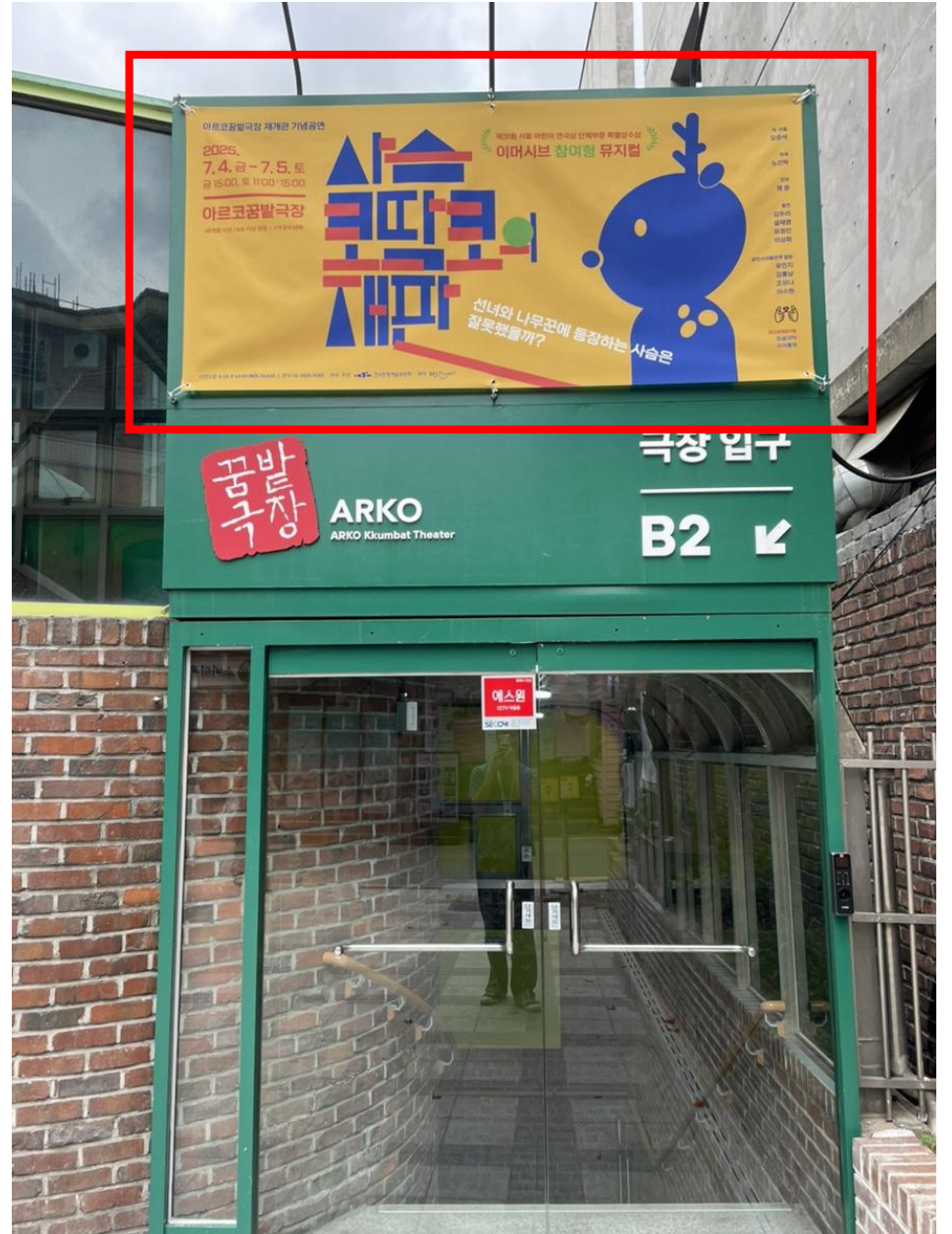
# 1층 외부 포토존



- 현수막 제작 및 게첩 (6방향 타공(아일렛), 친환경 문구 표기)
- 사이즈: 2820\*2140mm
- 벽면에 설치된 고리(우측사진 표시된 위치) 및 케이블 타이(단체에서 준비) 이용하여 게첩
- 별도 제공 친환경 문구 삽입 필요 (일러스트 파일 제공)

# 1층 외벽 부착용 현수막 (극장 입구)

- 현수막 제작 및 게첩 (6방향 타공(아일렛))
- 사이즈: 2090\*1000mm
- 벽면에 설치된 고리 및 케이블 타이(단체에서 준비) 이용하여 게첩
- 단, 전문 업체를 통해서만 작업 가능  
(극장 보유 사다리 없음, 설치 위치가 높아 안전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음)



# 1층 외벽 부착용 세로형 배너 (극장 입구)

- 배너 최대 2개 게첩 가능 (4방향 타공(아일렛))
- 사이즈: 600\*1800mm
- 벽면에 설치된 고리 및 케이블 타이 (단체에서 준비) 이용하여 게첩



# 스탠딩 배너



- 스탠딩 배너 최대 **2개** 사용 가능 (4방향 타공(아일렛), 극장 보유 프레임 및 고리 제공)
- 극장 내 · 외부 상관 없이 원하는 위치에 배치 가능
- 단, 단체에 제공되는 2개 이외에 극장 자체 안내용 배너(**우측 사진**)는 대관단체 사용 및 이동 불가
- 사이즈: 600\*1800mm (1층 외벽 세로형 배너와 동일)
- 현수막 재질로 제작하는 경우 늘어짐 현상이 있으므로 약간 짧게(600\*1780mm) 제작하는 것을 권장
-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배너 추가 설치 불가



# 지하 1층 게시판 (입구 계단) - 2160\*900mm

- 4절 기준 포스터 2장 게첩 가능  
(현재 공연작 2장, 공연예정작 2장)
- 자석 이용 게첩 (기본 수량 극장 보유)
- 이전 대관단체 셋업시작일부터 게첩 가능 ('다음공연' 부분), 세부 기간은 꿈발극장 담당자에게 문의



## 지하 1층 로비 화이트보드 - 3650\*2300mm



- 포스터 약 4장 게첩 가능, 담당자와 협의하여 수량 변경 가능
- 자석 이용 게첩 가능 (극장 보유 수량 없음)
- 단체 희망시 공연 특성에 따라 여러 방식으로 활용 가능 (단, 담당자와 사전 협의 필수)
- 자석, 보드마카 등 해당 공간 활용에 따른 필요 물품 준비, 설치 및 철수는 모두 대관단체에서 담당
- 공간이 협소하므로 활용시 관객 이동·대기 공간 및 안전 고려 필요 (꿈밭극장 하우스매니저와 협의)

## 3층 연습실 앞 게시판

- 포스터 2장 게첩 가능 (희망시)
- 자석 이용 게첩  
(기본수량 극장 보유)



## ※ 유의사항

- 모든 극장 홍보 포인트 활용 계획은 꿈밭극장 대관 담당자와 **사전 협의 필수**
- 사전 협의되지 않은 홍보물 추가 게첩 불가
- 극장 내부 홍보물 부착시 반드시 **벽면 부착용 테이프 또는 종이 테이프** 사용
- 모든 홍보물은 공연종료일에 대관단체가 직접 철거